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3~4/2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6	진우스님의 금강경 강설	진우	김영사
2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7	동자승 컬러링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3	33관음 컬러링 북	정기란	담앤북스	8	매일매일 채식밥상	홍승	담앤북스
4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	9	사바를 무대삼아 멋있게 살아라	경봉	효림
5	돈황본육조단경	성철스님	장경각	10	정관스님 나의 음식	정관,후남셀만	월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양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글 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부처님 생애	김정빈/최병용	솔바람	8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정현스님 지음	민족사
4	부처님의 당부:초기경전에서 선별한 지혜의 말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9	티베트 불교반야심경 강해: 반야심경을 통해 배우는 대승불교 현관차제의 정수	톨래 켄 린포체 이왕 가초	맑은소리맑은나라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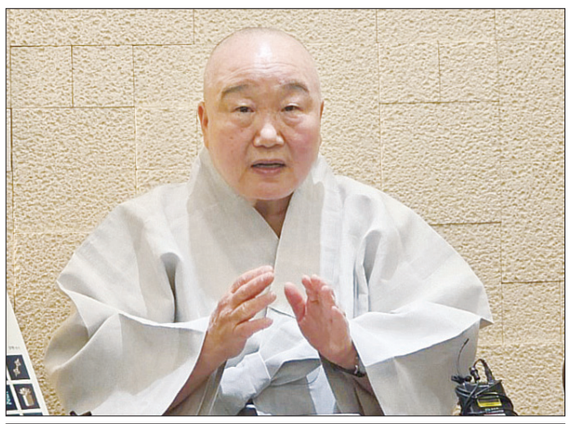
"불복장은 시대 문화의 총체"



불복장의 비밀
경원 스님 지음
민족사 / 3만5000원

비전으로 여겨졌던 '불복장'의 모든 것
경원 스님의 40년 연구성과 집대성
기원부터 변천 · 대표작 · 재현 과정 공개
"종교의식 넘어 인류의 귀한 유산"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약사불 후령통. 보물.
사진 제공=민족사

불상을 작품이나 문화재가 아닌 '예경의 대상'으로 완성하는 것은 불복장(佛腹藏)과 점안(點眼) 의식이다. 특히 불상에 사리와 경전 등을 봉안하는 불복장 의식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전(祕傳) 중의 비전으로 여겨져 왔다.

〈불복장의 비밀〉은 40여 년간 불복장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불복장연구소장 경원 스님(동학사 주지·사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스님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복장 의식이 언론에 수차례 공개됐는데, 제가 그간 배운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어 학술적인 정리를 위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원 스님은 20대 초반, 동학사승가대학 호경기환 스님과 청봉혜묵 스님에게 불복장법을 배웠다. 이후 인도부터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학술조사에 참여하며 불복장 연구를 이어왔다. 지금까지 마곡사·법주사·수덕사·선운사·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등의 불복장을 맡았다. 올해 3월에는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부설 한국불복장연구소를 개소하고 현재 26명의 스님을 지도하고 있다.

경원 스님은 "전적(典籍), 불화, 불구, 의류, 고전(古錢), 장신구 등을 봉안하는 불복장은 조성 당시의 신앙생활과 철학·의학·공예·회화·서예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중심임을 밝히는데 복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창적인 복장물인 후령통은 밀교와 화엄사상, 주역사상을 근거로 조성된 성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불복장작법'이 2019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난해부터는 국가유산청이 '복장유물 정밀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은 추천사에서 "경원 스님의 불복장 유물 연구 성과는 한국 불교문화 연구의 미개척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개인의 작선(作善)과 당시의 조상(造像) 형태를 엿볼 수 있기에 불교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대외 교류, 지역적 특징을 연구함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불교미술의 이해'에서는 부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은 '무불상(無佛像) 시대'부터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한 배경과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핀다. 2부 '불복장의 기원과 의미'에서는 복장의 의미와 범주, 인도와 중국의 고대 불상에 납입(納入)된 복장물과 시대적 특징을 짚는다.

3부 '한국의 복장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복장 의식이 처음 기록된 〈다라니집경〉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 시대별 대표 불상 복장물을 소개한다. 4부 '불복장의 재현과 해설'에서는 주요 복장물과 점안의식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어 5부에서는 불상 조성의 의식과 절차를 정리한 〈조상경〉의 판본을 비교하고 그 구성과 과목을 살핀다.

경원 스님은 "불복장은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종교의식을 뛰어넘어 현재의 문화·학술·역사적 유산이며 미래에도 인류의 귀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범자(梵字)와 주역사상을 더 깊이 공부해 불복장 연구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부처님 원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산스크리트어 문법
츠지 나오시로 지음 / 법장 스님 옮김
담앤북스 / 2만9800원

중 · 상급자 위한 산스크리트어 문법서
'데바나가리' 싣고 쉬운 우리말로 풀이
번역 맡은 법장 스님 "충실한 문법 가이드"
"원어로 부처님 가르침 더 깊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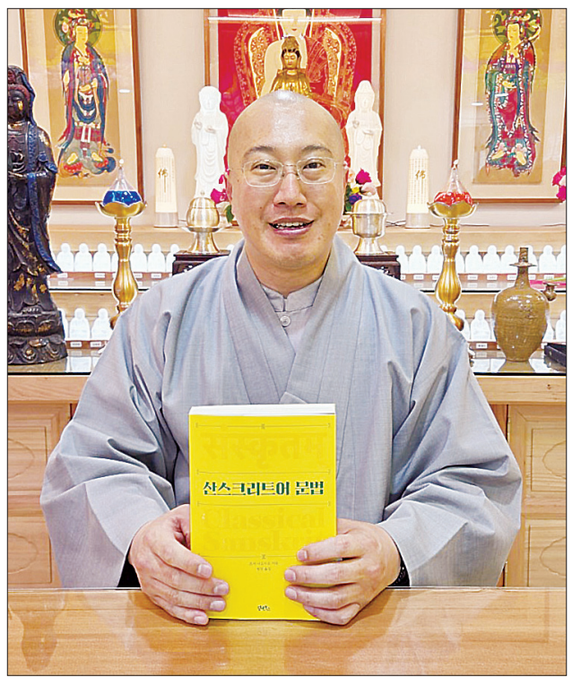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곡 '만트라(Mantra)'나 열반을 뜻하는 단어 '니르바나(Nirvana)'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불교 용어 중에 산스크리트어가 많습니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충실한 안내서입니다."

일본 산스크리트어 연구의 권위자인 츠지 나오시로 교수(1899~1979)의 〈산스크리트어 문법〉이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일본 유학 시절,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위해 읽고 또 읽었던 책이기에 출판사의 번역 제안을 선뜻 수락했다는 법장 스님(전 해인사승가대학감)은 "국내에 초급 문법서는 여럿 출간되어 있지만 중급을 넘어 상급까지 폭넓게 다루는 문법서는 이 책이 유일하다"고 의의를 짚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와 주변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로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경전이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고,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불교 경전이다.

법장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것은 불교의 원어를 통해 본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며 "한역은 그르고 산스크리트어는 옳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이해함으로써 불교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스크리트어 문법〉은 대문법가 파니니와 그 제자들이 체계화한 고전 산스크리트어의 문법을 기술한 책이다. 저자인 츠지 나오시로 교수는 독자들이 중상급 문법을 접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풍부한 예문과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산스크리트어 문법〉 번역을 맡은 법장 스님은 "출간된 지 50년이 지나서야 국내에서 소개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자는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자칫 간단한 초보 문법을 공부한 정도에 만족하고, 곧바로 수준 높은 전문서를 독해하려는 경향을 염려해 최초의 계획보다 다소 상세한 문법서로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읽는 것으로 내용 전반을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난해한 부분에 붙들리지 말고 수차례 읽다 보면 점차 의문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역자인 법장 스님 역시 "입문 수준으로는 산스크리트어 율장과 논서를 독해하기 어려운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며 "출간된 지 거의 50여 년이 지나서야 국내에 소개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번역서는 총 520페이지로 원서에 비해 2배 가까운 분량이다.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알파벳인 '데바나가리'를 원문 그대로 실었고, 예전 일본식 표현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다 보니 분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앤북스 유튜브 채널 '담앤미디어'에서 책의 의미와 산스크리트어 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장 스님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오늘날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며 "이 책이 부처님의 원음을 바르게 익힐 수 있는 충실한 안내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울산 천만사
주지 향덕 스님
- UN NGO평화대사
- 사)한국불교명예의전당 총재
- 학생가장돕기 전국연합 총재
- 에디오피아 경제 문화 총영사
사부대중 일동


98년 MBC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수미산기행'의 작가
최규익 교수의 소설집
[날치] [검은극장] [루이 드가의 편지]


삼산책방 samsanbooks@naver.com

작가 최규익
먼 기억 속에서 알타이의 톱슈르 소리가 들려오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상수리나무 잎사귀들이 자욱하게 떨어져 쌓였다. 내 고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 잎사귀들 속에서 이야기는 잉태되었다.
최규익 소설가가 제주에서 쓴 서사는 죽음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음악이었다.
- 윤후명 소설가